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설 대목 웃지 못하는 농심

설 앞두고 시름 깊은 전남 농가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의 상승세에도, 나주 '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농민들 시름이 깊다.

8일 만난 조성춘(70·나주시 금천면)씨는 가격 시장에 보낼 배를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 중이었다. 50년째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조씨는 "기후위기 때문인지 해마다 물량과 품질이 불안정해지고 배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창고 한 쪽에는 과육이 갈라지거나 멍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배들이 10여개 상자에 가득 담겨 있었다. 지난해 봄 이상저온으로 냉해를 입은 데다 한여름 폭염으로 열과 현상까지 겹쳐 생육 부진이 심했고, 착과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저장 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조씨 설명이다.

조씨는 "폐기해야 하는 배는 늘고, 제수용품으로 인기가 많은 '특·상품'이나 겨우 평소 수준을 유지하지 중·하품은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민들은 지난해 추석 당시 가격 폭락의 여파가 연말·연초까지 이어지며 가격 회복이 더뎠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올해 배 가격은 전년 대비 4분의 1도 막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일 기준 배(신고) 15kg 한 상자 기준 도매가격은 7만 4300원이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7만 6600원)보다 3% 떨어지고, 지난해 같은 기간 10

냉해·열과현상 겹쳐 생육 부진
지난해보다 가격 25.7% 떨어져
생산비 늘었는데 가격 하락 올상
쌀 농가도 "가격 올라도 이익 없어
올해 농사 계속해야 하나" 고민

만 원과 비교하면 25.7% 하락한 수치다. 또 지난해 설을 기준으로 10일 앞선 1월 17일(10만 3000원)과 비교해도 27.87% 낮다. 생산비는 올랐는데 가격은 떨어지니 농민들 속이 좋지 않다.

사과(부사) 가격이 지난해 3만8067원에서 지난 7일 기준 5만9821원으로 57% 급등하고, 단감 가격이 1kg 기준 3970원에서 3767원으로 소폭(5%)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감귤과 샤인머스켓 등도 가격이 떨어졌다. 6일 기준 감귤 노지(10개) 가격은 476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75원)보다 25.3% 떨어졌다. 포도(샤인머스켓) 2kg 가격은 1만485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453원) 대비 19.48% 하락했으며, 평년 가격(2만8650원)과 비교하면 48.14% 낮은 수준이다.

나주에서 1만 3200㎡(4000평) 규모로 배 농사를 짓는 김성보 나주배생산자협회 집행위원장도 "지난해 수확 목표를 45t으로 잡았지만 실제 수확량은 32t 수준에 머물렀다"며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배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가격



8일 오전 나주시 금천면 배 저장창고에서 조성춘씨가 폐기해야 할 멍든 배를 살펴보고 있다.

형성이 지나치게 낮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도매상들도 올상을 짓고 있다. 지난 6일 찾은 나주배원에농협농산물공판장에서는 상인들이 곧 명절 제수용품을 사러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배 가격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 팔아도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는 걱정도 안고 있었다.

30년째 과일 도매상을 하고 있는 김모(여·70)씨

는 "지난해 배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물량도 부족한데 가격까지 떨어져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며 "물가를 고려하면 배 7.5kg 한 상자가 7만~8만 원은 돼야 수지가 맞지만, 가격이 더 오르면 소비자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정부 정책이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지정출하제를 통해

물량을 방출하면서 햇배 가격이 급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올해도 정부가 물량을 대량 방출하면 그나마 낮았던 배 가격마저 떨어질까 두렵다는 것이 농민들 입장이다.

농민들은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경기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만큼은 지정출하제 물량을 방출하지 말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쌀 농가도 설을 앞두고 쌀 가격은 오르는데 정작 농민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없어 당장 올해 농사부터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데이터터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3개월간의 산지쌀값 평균은 20kg 기준 5만7700원선이었다.

반면 쌀 소비자가(6일 기준)는 20kg 포대가 6만 2456원으로, 지난해 동일 5만4494원에서 14.6% 비싸졌다. 광주의 한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20kg 한 포대에 6만4000원에서 7만3000원 사이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 소매가격은 올라 소비자 부담은 커졌지만, 농민들은 "소비자 가격만 높은 뿐, 농민들에게는 별로 돌아오는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에서 쌀 농사를 30년간 지어온 윤세주(62)씨는 "쌀을 사먹는 사람들은 비싸다 비싸다 해도 정작 이미 다 팔아버린 농민들에게는 남는 게 없다"며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 쌀을 구입하는데도, 농민들이 농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 집계와 쌀 판로 확대, 가공식품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나주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

‘5·18 편취’ 이진숙 광주 강연에...시민들 “당장 떠나라” 반발

〈전 방송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시에서 강연을 열면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전일빌딩에서 강연을 계획했다가 광주시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인근 호텔로 옮겨 강연을 강행했다.

광주전남춌봄행동은 8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ACC디자인호텔 앞에서 이 전 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강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해당 호텔 연회장에서 보수 성향 단체 ‘호남대안포럼’ 주최로 ‘이재명 주권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 전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당장 광주를 떠나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내란 공범 이진숙’, ‘5·18을 모욕한 이진숙은 광주를 떠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전 위원장과 대치를 이어갔다.

단체는 “5·18을 모욕하는 세력이 감히 광주에 발을 들이려 한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내어줄 공간은 없다. 오월 정신을 모욕하는 이진숙은 당장 광주를 떠나라”고 질타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



8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ACC디자인호텔 앞에서 이진숙(오른쪽 두번째)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광주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 집회 참가 시민들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5·18을 편취하는 발언을 하는 등 시민들을 모욕·조롱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중재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강연에 앞서, 자신을 막아서는 시

민들에게 “내가 광주에 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느냐”며 “나보고 내란 주도 세력이라고 하는데 아직 내란 재판은 1심도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과거 5·18을 ‘광주사태’로 깎아내리거나, 시민군을 ‘폭도’로 매도하는 SNS 게시물에 공감을 표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또 5·18 관련 단체를 ‘이권단체’로 거론한 영상을 공유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강연은 당초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위원장의 과거 5·18 관련 발언 등이 장소의 상징성과 배치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광주시는 지난 5일 관련 조례를 들어 대관을 취소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진도군수 ‘처녀 수입’ 발언 후폭풍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에 김 군수 “부적절 발언” 사과문

김희수 진도군수가 공식석상에서 “베트남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자”고 발언하면서 후폭풍이 일고있다. 김 군수는 논란이 일자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고, 전남도도 대변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 4일 해남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향해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을 위한 것을 법제화를 해야한다”며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지 아니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제대로 되겠나”고 말했다.

김 군수의 발언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 석상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김 군수의 질의를 받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구 소멸 대책은 저출생 고령사회기본

법을 만든 이후 수십 년 동안 잘 안되고 있다”며 다만 “외국인 결혼 수입 이전 잘못된 이야기 같다”고 선을 그었다.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자, 김 군수는 사과문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는 진도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정부,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으신 베트남 국민과 여성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전남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